

타자와 환대의 서사

〈숙향전〉의 윤리적 독법

The Narrative of Others and Hospitality: An Ethical Reading of the <Sookhyangjeon>

유해인**

국문요약 이 글은 〈숙향전〉을 타자에 대한 환대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서사로 해석한 연구다. 숙향은 ‘다섯 차례의 죽을 고난을 겪은 후 행복해진다’는 운명을 살아내는 인물로,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타자의 얼굴로 주변인물에게 윤리적 응답을 요구하는 주인공이었다. 이에 〈숙향전〉의 주요 사건은 숙향에 대한 주변인물의 윤리적 응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주변인물의 응답은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로 나타났다. 조건적 환대를 보인 인물은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로, 숙향의 예정된 고난을 막지 못했다. 이후 두 부부의 속죄 서사가 숙향의 고난 서사와 중첩되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조건적 환대의 한계와 그에 대한 윤리적 반성을 담고 있었다. 무조건적 환대를 보인 인물은 이선이었다. 그는 숙향의 천정인연으로 숙향에 대한 환대를 선택적 명령으로 인식하고 숙향이 겪었던 고난을 뒤집는 탐색의 여정을 떠났다. 이를 통해 숙향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이선은 신분과 처지를 초월한 낭만적 사랑으로 숙향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를 실현했다. 그 결과 숙향은 삶의 주동성을 되찾아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자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핵심어 숙향전, 타자, 타자의 얼굴, 책임, 환대, 윤리적 서사, 낭만적 사랑

- 차례**
- 들어가며
 - 숙향: 고난 주체의 서사적 기능
 - 김전 부부·장승상 부부: 속죄 서사의 중첩과 책임 윤리의 자각
 - 이선: 낭만적 사랑의 의미와 환대의 가치
 - 나가며

1. 들어가며

〈숙향전〉은 전쟁고아 숙향이 다섯 번의 죽을 액을 이겨내고 천정인연 이선과 재회하여 정렬부인이 되는 이야기다. 비천한 전쟁고아가 고귀한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게 되는 숭한 고난은 모두 초현실적 존재들의 우연한 개입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월궁소아였던 숙향이 지은 업보 때문으로, 모두 옥황상제의 명(命)에 따라 실현된다. ‘비현실성’, ‘우연성의 남발’, 이를 통한 ‘행복한 결말’로 결구되는 〈숙향전〉은 정말이지 고소설의 “결함”이라고 지적되는 요건을 두루 갖춘 서사로 보인다. 그러나 〈숙향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함처럼 보이는 비현실성, 우연성, 행복한 결말에서 전쟁고아라는 타자와 그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일(토) 개최된 제6차 고전문학자대회에서 ‘타자와 환대의 서사로 읽는 〈숙향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포스터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고전문학회 관계자 선생님들과 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귀한 조언을 주신 이지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러한 타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고민한 선조들의 따뜻한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숙향전〉은 숙향이라는 전쟁고아의 삶을 통해 타자와 환대의 문제를 환상적 필치로 그려낸 윤리적 서사다. 〈숙향전〉의 윤리적 성격은 초기 연구에서부터 ‘원초적 윤리의식’¹ 내지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적 도덕관념’²으로 논의되며 작품의 서사 지향을 구성하는 기본 의식으로 이해되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도덕주의적 색채는 시혜와 보은의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³ 특이한 점은 고난을 겪는 숙향에게 도움을 베푸는 조력자가 거북이(포진물신녀), 청조, 홍조, 청삽사리 등의 자연물로 설정되어 있고 이후 숙향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 화합적 관계’⁴를 읽고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숙향전〉을 고찰하기도 했는데, 〈숙향전〉의 윤리적 성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대표적 성과로 이기대의 논의가 있다. 논자는 〈숙향전〉에서 인물들의 삶이 사소한 보살핌에서 커다란 인연으로 발전하는 연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숙향전〉의 인물들은 자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생태주의적 실천에 해당하는 공존과 공생의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⁵ 이상의 논의는 〈숙향전〉이 그려낸 도덕주의적 서사가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도덕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윤리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니, 작품의 타자 중심적 성격이 전쟁고아인 숙향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치밀하게 분석되지 못해 아쉽다.

〈숙향전〉은 17세기에 일어난 임병양란의 체험과 그로 인해 발생한 유기아(遺棄兒)의 문제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⁶ 때문에 〈숙향전〉의 윤리적 성격은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연계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숙향전〉의 주인공인 전쟁고아 숙향을 중심으로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숙향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에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한 작품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숙향에 대한 인물론은 많지 않다.

그중 고난으로 점철된 숙향의 삶에서 능동적 성격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논의도 있다. 숙향을 ‘통과의례를 모두 극복한 성장의 주체’⁷, ‘기억의 재구성으로 고난을 극복한 치유의 주체’⁸, ‘신분과 계급 등의 구분짓기를 뛰어넘는 경계 허물기의 수행자’⁹, ‘선계와 속계의 이중적 정체성을 소유한 속죄의 주체’¹⁰로 본 논의가 대표적이다. 숙향의 삶이 운명에 지배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1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 『이수봉박사 정년기념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538쪽.

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256쪽.

3 특히 〈숙향전〉의 기본 서사 구조를 ‘시혜-보은의 구조’로 보고 그것을 통해 작품의 윤리적 성격을 논한 논의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윤경희, 「이대본 〈숙향전〉에 나타난 造明論적 세계관」,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219~243쪽;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186~201쪽.

4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263쪽.

5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61~89쪽.

6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상구, 「〈淑香傳〉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64~101쪽; 김경미, 「〈숙향전〉: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03~124쪽;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37~74쪽.

7 이우경,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499~528쪽.

8 김지혜, 「기억의 서사로 읽은 〈숙향전〉의 의미: 반복 서술되는 고난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43~71쪽.

9 이승은, 「〈숙향전〉: 경계 허물기와 동일시의 서사」,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97~126쪽.

10 송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숙향의 二重的 正體性과 그 의미」,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93~122쪽.

수 있다.

그러나 숙향이 정해진 고난을 이겨내는 데에는 주변인물의 역할이 결정적이다.¹¹ 숙향에게만 주목할 경우, 숙향을 도운 주변인물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조혜란의 논의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조혜란은 숙향이 철저한 무능력과 수동성을 지닌 ‘청순가련형 여주인공’으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설정이 주변 인물의 개입과 원조를 추동한다고 보았다.¹² 숙향의 형상이 아닌 그러한 형상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분석한 것이다. 조혜란의 지적처럼 〈숙향전〉에서 숙향의 서사적 역할은 무능력하거나 수동적으로 보이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전개되는 사건을 ‘추동’해 나가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다.

숙향은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버려진 인물이다. 혼자서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란 것이다. 때문에 숙향이 울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물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하고 유일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숙향의 눈물 어린 요청에 주변인물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숙향전〉은 숙향을 고통스러운 얼굴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타자의 서사인 동시에, 그러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 주변인물의 응답, 즉 환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서사다. 숙향의 인물 형상은 숙향만이 아닌 타자 숙향을 죽이거나 살린 주변인물의 역할과 함께 조명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숙향과 더불어 주변인물의 역할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¹³ 다만 〈숙향전〉의 현실적 고민을 드

러내기 위해 숙향을 도운 여러 인물 중 천상계가 아닌 속계에 기반하고 있는 인물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숙향전〉의 윤리적 성격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내고, 숙향과 주변인물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켜 볼 것이다. 대상 텍스트는 선본(善本)이자 〈숙향전〉의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정문연A본을 사용한다. 서사적 결락이 있을 경우 이대본을 참고하겠다.¹⁴

2. 숙향: 고난 주체의 서사적 기능

숙명론적 세계관이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숙향전〉에서 숙향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 아니다. 숙향은 주어진 운명을 살아‘내는’ 인물이다. 때문에 숙향에게선 일반적인 고소설의 여성인물과 같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숙향을 주인공답지 않다고 말할 순 없다. 숙향은 사건을 추동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사건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숙향에게 주어진 운명의 성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숙향에게 주어진 운명을 중심으로 숙향이라는 주인공이 가진 서사적 기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타난 마고할미의 역할과 그 의미: 〈이대봉전〉의 마고할미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23,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7~36쪽; 서보영, 「고전소설 〈숙향전〉의 보조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거러어문학』 64, 거러어학회, 2020, 33~60쪽; 한의송, 「위계적 남성과 박탈된 여성, 그리고 약자의 연대와 위로: 〈숙향전〉 독해와 교육의 시각」, 『한국문학논총』 88, 2021, 33~61쪽이 있다. 그러나 김태영의 논의는 천상계의 존재인 마고할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보영의 논의는 타자 숙향과 관계하는 중심적 주변인물(조력자)뿐 아니라 〈숙향전〉에 등장하는 반동적 인물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글에서 주변인물을 분석하는 관점은 다르다. 한의송의 경우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 글에서 주목하는 주변인물인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주변인물과 숙향의 관계를 좀더 문제로 해석하고 있어 이 글의 관점과 다르다.

11 심치열은 〈숙향전〉이 조력자의 도움이 돋보이는 소설이라고 했고, 초기 숙 역시 “나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 숙향이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서 그녀를 지켜준 생명의 힘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두 조력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38, 한국언어학회, 1997, 243~269쪽; 최기숙, 앞의 책.

12 조혜란, 「〈숙향전〉의 숙향: 청순가련형 여성주인공의 등장」,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39~63쪽.

13 〈숙향전〉의 주변인물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 논의로 김태영, 「〈숙향전〉에

14 〈숙향전〉의 이본에 대한 연구는 이상구, 앞의 글, 1994; 차충환, 앞의 책, 1999에서 잘 이루어졌다. 작품의 원문을 인용할 때는 정문연A본과 이대본이 활자화된 김진영·차충환 편저, 『숙향전 전집』 1, 박이정, 1999를 대본으로 삼는다. 이후 원문을 인용할 땐 별도의 서지사항을 밝히지 않고 쪽수만 표기하겠다.

숙향은 김전과 장씨가 명산을 두루 다니며 기자치성 끝에 얻은 귀한 딸이다. 김전은 숙향의 고운 얼굴과 총명함을 사랑하며 애지중지 기른다. 숙향이 세 살 된 무렵 김전은 딸의 너무나도 뛰어난 자질에 단명할 것이 걱정되어 관상쟁이 왕균을 집안에 들인다. 왕균은 숙향의 관상에서 월궁항아의 정기를 읽으며 팔자를 점치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 하늘에서 죄를 얻어 인간계로 귀향을 왔으므로, 열다섯이 될 때까지 총 다섯 차례의 죽을 액을 감당하는 팔자로써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숙향의 액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왕균이 다녀간 2년 후, 숙향은 다섯 살이 된다. 때마침 마을에 도적 떼가 출몰해 김전은 가솔을 이끌고 피란길에 오른다. 도중에 도적을 만나 노복과 재물을 모두 잃을 정도로 사태는 갈수록 급박해진다. 한 손으로 부인 장씨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숙향을 들쳐 업은 채 죽기 살기로 도망하지만, 계속 뒤쫓아 오는 도적 떼를 도무지 피할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김전은 숙향을 바위 밑에 숨겨 놓고 장씨와 달아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당장의 난리를 피한 후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김전은 사실상 어린 딸 숙향을 유기한 것이다.

왕균이 예언한 숙향의 액운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숙향은 부모에게 버려진 순간부터 다섯 번의 죽을 액을 맞닥뜨린다. 물론 고난의 원인이 전생의 업보 때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에 덧씌워진 환상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면, 숙향이 차례로 겪게 될 다섯 번의 액은 버려진 아이가 마주할 수 있는 너무도 일반적인 죽음의 위기들에 해당한다.¹⁵

- (5살) 도적떼의 침입
 피난중 김전 부부에게 유기
 ① 반야산에서 도적의 칼에 죽을 액
 ② 명사계를 방문하는 액
 장승상 부부에게 의탁
 ...
- (15살) 사향의 모함
 장승상 댁에게 쫓겨남
 ③ 포진강에 빠져 죽을 액
 ④ 노전(蘆田)에서 불타 죽을 액
 이화정 술파는 할미에게 의탁
 낙양 이위공의 아들 이선과 결혼
 ⑤ 낙양 옥중에서 맞아 죽을 액

위는 왕균이 예언한 다섯 살부터 열다섯 살 때까지 숙향이 겪게 되는 액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①~⑤가 숙향에게 주어지는 액의 구체적 내용이다. 여기서 액이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액의 구체적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숙향의 액이 시작되는 시점은 부모에게 유기를 당한 순간부터다. 연달아 발생한 액은 숙향이 장승상 부부에게 의탁하면서 중단된다. 그러다 사향의 모함으로 장승상 댁에서 쫓겨나는 순간, 숙향은 또다시 연이은 액운을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액은 이화정에서 술을 파는 할미에게 의탁한 이후에 발생한다.

마지막의 경우를 제외하면, 숙향에게 일어나는 네 차례의 액운은 궁극적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의지할 곳을 잃었기에 겪게 되는 일들에 해당한다.¹⁶ 보호자가 없으니 ① 도적의 칼에 맞아 죽을 액을 당하고, 부모를 찾고자 홀로

15 이상구는 숙향의 고난의 여정이 전생아가 남의 집 시비에서 술집 기녀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한 바 있다. 숙향에게 주어진 액운은 고아의 현실적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구, 앞의 글, 1991, 84쪽.

16 이유경은 숙향의 '다섯 번의 죽을 액'을 숙향만의 특수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성장하기 위해 꼭 겪어내야 하는 통과 의례적 시련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다섯 차례의 고난을 숙향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유아기에 서 벗어나는 과정', '결혼 적령기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 '혼인 후 시댁의 정식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이유경,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499~528쪽.

이 산 저 산을 떠도니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②명사계, 즉 저승을 방문하는 액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잇따라 발생하던 액이 장승상 부부라는 의지처를 만나자마자 중단되는 것이 고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향에 의해 다시 버려진 후 당한 액도 마찬가지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숙향은 자결을 결심한 후 ③포진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액을 맞았고, 이후 갈 곳 없이 떠돌다가 ④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났다.

①~④까지의 액은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들이긴 하지만,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도적을 만나 죽고, 배고파 지쳐 죽고, 스스로 몸을 던져 죽고, 화재를 만나 죽는 일. 이러한 일들은 버려진 고아가 떠돌이 삶을 살다가 겪을 수 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고난에 해당한다. ⑤도 마찬가지다. 이화정에 의탁한 후 일어난 다섯 번째 액운은 혼사장애다. 숙향에게 빠진 이선은 재상가의 아들이다. 재상가에서 고아 출신에 술집에 기거하는 미친한 숙향을 반가워할 리 없다. 그 부모가 둘 사이를 떼어 놓고자 숙향을 옥중에 가두며 발생한 액이 ⑤다. 혼사 장애는 출신을 알 수 없는 고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하지만 흔한 고난이라 하겠다.

문제는 숙향이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내고 끝내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처음 고난을 맞게 될 때 숙향의 나이는 고작 다섯 살이었다. 이제 막 세상에 대해 배워가야 할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는데 시체가 나뉘구는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숙향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울면서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길뿐이다. 이에 주위의 도움은 숙향이 숙명적으로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흥미롭게도 <숙향전>은 고난에 빠진 숙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숙향이 길 위를 헤매며 통곡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유를 묻고, 숙향이 자신에게 닥친 주체할 수 없는 고난을 털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숙향의 사연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은 숙향의 주인공으로서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는 ‘얼굴’로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때 얼굴이란 눈, 코, 입, 귀가 붙어 있는 사람의 머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얼굴은 ‘나’에게 윤리적 응답을 요청하는 타자를 지시한다.¹⁷ 숙향이 길가에서 만난 도적들, 피란민들, 장승상 부부에게 내보인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타자의 얼굴이다. 숙향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며 별 거벗은 얼굴로 그들에게 윤리적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살 난 숙향은 별안간 고아가 되어 갑작스레 닥쳐오는 액운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이견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숙향의 고난은 오로지 숙향의 눈물로 범벅된 고통스러운 얼굴을 마주한 주변인물들의 응답으로만 극복이 가능하다. 숙향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물의 도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는 주인공이다. 때문에 <숙향전>의 사건은 숙향이라는 주인공으로부터 추동되지 않는다. 숙향을 돕는 주변인물로부터 추동된다. 중요한 건 그 계기를 숙향이라는 주인공이 타자의 얼굴을 한 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이에 <숙향전>은 전쟁 고아 숙향을 고통스러운 얼굴로 내세운 타자에 관한 서사라고 하겠다.

17 타자의 얼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에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그린비, 2018을 참조.

3. 김전 부부·장승상 부부

: 속죄 서사의 중첩과 책임 윤리의 자각

〈속향전〉은 전쟁고아 속향을 타자의 얼굴로 내세워 그들을 마주한 주변인물들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윤리적 서사다. ‘다섯 번의 죽을 액을 당한 후에야 행복해 진다’는 속향에게 주어진 운명은 속향의 얼굴을 마주한 주변인물이 응답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현된다. 속향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외면해 예견된 고난을 현실화하는 인물은 속향의 부모인 김전 부부와 속향의 수양 부모인 장승상 부부다. 이 장에서는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의 서사를 살펴 〈속향전〉의 윤리적 성격을 고찰해 보겠다.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는 속향의 보호자였다가 속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인물들이다. 먼저 김전 부부는 계속되는 도적 떼의 추격에 도망할 힘이 모두 빠져버리자 속향을 외면한다. 어린 딸을 “버리고” 도망가길 선택한 것이다. 어머니의 치맛자락, 아버지의 허리띠를 부여잡고 함께 데려가 달라며 애원하는 속향의 모습에서 자신이 버려질 것이란 사실을 인지한 어린아이가 느낀 극도의 두려움이 잘 전달된다. 부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적 떼가 코앞에 당도하자 울고 있는 속향앞에 커다란 바위를 가져다 놓는다. 버리고 가겠다는 결단을 드디어 내린 것이다.¹⁸ 속향의 손에 쥐어준 약간의 식량과 그 앞을 가로막은 바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연약한 속향을 무자비하게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자기위안이라고 하겠다.

장승상 부부는 수양딸 속향에 대한 의심이 싹트자 속

향을 외면한다. 사향은 속향이 승상택으로 오기 전까지 장승상 부부의 총애를 받던 시비였다. 갑자기 나타난 속향에게 승상 부부의 사랑을 모두 빼앗기게 되자 사향은 속향에게 강한 시기심을 품게 된다. 그러다 부부가 아끼는 보물(금봉채와 옥장도)을 속향이 훔쳤다는 모함을 꾸미고 승상 부부와 속향 사이를 이간하기에 이른다. 사향은 승상 부부를 속이는 데 성공하고 속향은 승상 택을 떠나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된다. 모든 사건은 시비 사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속향을 내치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향이 아닌 장승상 부부다. 아울러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사향이 사람들 몰래 숨긴 보물이 아니다. 속향이 “남의 자식인 탓”¹⁹에 있다.

속향은 승상 부부의 수양딸이다. 당시 수양딸은 양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서로 간의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결속력이 약한 관계였다.²⁰ 때문에 승상 부부가 속향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속향이 친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는 깊은 불안이 자리할 수 있다. 실제로 속향을 굳게 믿던 부인의 마음이 돌아선 건 ‘속향이 아무래도 혼담이 오가가 자기 살림의 꾸리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사향이 꾸며낸 말 한마디에서였다. 이후 승상 부인은 속향에게 “혈육보다 너를 더 중히 여겼다”, “너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거듭하며 서운함을 토로한다.

승상 역시 마찬가지다. 승상은 속향이 외간 남자와 사통한다는 사향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집에 흑여라도 변이될 것이 걱정되어 속향을 내치라 명한다. 사향은 부인에게 달려가 승상의 말을 “양반의 자식니면 현마 그러하랴? 반드시 상한의 자식인가 시부니 집니 두

18 한의승은 속향을 버리는 아버지 김전의 결단을 속향의 성별 문제와 연관 지어 해석했다. 논자에 따르면 속향의 유기는 여성들이 겪었던 조선 사회 저변에 깔린 가문과 남성중심적 문화의 희생양으로 태생적 고립과 불안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적 가부장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혈연으로 포장된 관계 내면의 취약성을 전면에 노출시킨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의 구도는 아래에서 살필 장승상의 역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한의승, 앞의 글, 38~45쪽.

19 사향의 모함으로 속향의 방에서 부부의 보물이 발견되자 부인이 처음으로 한 말이 “남의 자식인 탓”이라는 것이었다. “『울리는 속향 사랑하미 혈육도곤 더 중히 너겨 가업을 다 전코자 하여씨니 저는 남의 자식인 타스로 날을 쇼겨 니 두 가지 보비를 가져다가 제 함의 너하시니 엇지 처치하리릿가?』(386쪽)

20 조선시대 수양 및 시양과 관련 법에 대해선 박경,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의 정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1~164쪽을 참고.

면 일정 큰 환를 볼 거시미 슈히 너여보너라”(388쪽)라고 전한다. 이는 과장되게 꾸며진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숙향의 출신에 대한 승상의 불신이 잠재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²¹ 실제로 승상 부부는 숙향의 비범한 자태를 보고 “양반의 자식”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²²

물론 승상 부부는 진실을 호소하는 숙향을 보고 그녀를 내치겠다는 마음을 돌린다. 그러나 그 결심은 숙향에게 곧장 전달되지 않는다. 승상이 뒤숭숭한 꿈자리를 핑계로 숙향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 부인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새 술을 마신다. 승상 부부의 이러한 처사는 실로 무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수양딸을 의심했다는 미안함과 자신들의 의심으로 불안해진 가내의 숙향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그 순간 숙향의 일을 뒤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사이 사향은 숙향에게 또다시 거짓을 고했고, 오명을 뒤집어쓴 숙향은 제 발로 승상택을 떠났다. 그리고 억울함과 막막함에 포진강에 몸을 던졌다.

모두 악비(惡婢) 사향의 탓처럼 보이나,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적으로 승상 부부의 오판에 있다. 승상 부부가 숙향을 품었던 건 숙향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았을 때’만이다. 숙향이 남의 자식이고, 상놈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애써 묻어두었던 의심이 제기되자마자 이들은 예견되는 숙향의 고난을 외면해 버린다. 애초부터 후사가 필요하다는 ‘나’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존재였으니, 그 필요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버린 것이다.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가 숙향과 맺은 관계는 조건적 환대로 볼 수 있다. 데리다는 조건적 환대를 환대임에도 불구하고 ‘적대’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조건적 환대

는 “자기-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겠다는 주장에 의해 잠재적으로 이방인 혐오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²³ 김전 부부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숙향을 유기했고, 장승상 부부는 남의 자식임이 드러나고 상놈의 자식이라는 의심이 들자 숙향의 위기를 외면했다. 이들은 나의 것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연약한 숙향에게 마음을 내준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 환대는 숙향에게 주어진 운명의 굴레를 끊어 내기에 부족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의 서사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숙향전>은 이들이 숙향을 외면한 이후의 삶을 주의 깊게 조명한다. 이들의 선택 때문에 어김없이 실현된 숙향의 고난 서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의 서사와 중첩되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서사는 숙향을 잃었다는 강한 상실감에 숙향을 지켜야 했다는 책임 윤리를 자각하는 속죄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는 모두 자신의 처지가 좀 나아지자 숙향을 다시 찾는다. 그러나 숙향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이후다. 숙향의 부재에 이들은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 책임감은 숙향의 죽음으로 구체화 된다. 숙향의 꿈을 꾸 장씨 부인은 숙향이 영혼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절망했고, 집을 떠나며 숙향이 남긴 혈서를 본 장승상 부인 역시 숙향이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약하고 갈 곳이 없는 숙향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이들의 삶은 “주야로 간장이 썩어가고”²⁴, “매일 슬퍼하는” 나날들이 되어버린다. 이들이 겪은 죄책감의 깊이는 이후 숙향과 재회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전 부부와 승상 부부는 각각 11년, 5년 만에 숙향과

21 이승은, 앞의 글, 104쪽.

22 “부인니 불너 디척 왈 「우리 무자식하야 쥬야 설워하다가 늦기야 너를 어드미 얼굴과 하는 일니 비상하여 양반의 자식인가하여 품 사히에 길너 친 자식갓치 귀히 사랑하여 가증사를 다 맛기고 우리 집과 갓튼 가문을 듯보와 아름다운 비필을 구하여 후사를 다 전코자 하여쓰니 네 쓰지 변하여 저러듯 불의를 행하는나?(…)」”(387쪽)

23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89쪽.

24 “그 옥네 공순 디왈 「그는 조금도 녀녀 마르쇼셔. 발셔 천상의서 마련하신 일니미 다시 고칠 건 업건이와 부인의 부모도 전성죄로 부인을 일코 간장을 석이며 고흡으로 지니여 전성죄를 쇠멸하게 하여시니 엇지 혼탄하오며(…)」”(392쪽). 이 말은 숙향이 장승상택을 나와 포진강에 투신했을 때 만난 월궁의 옥녀가 숙향이 인간사에서의 일을 걱정하자 한 말이다.

재회한다. 김전 부부는 낙양 옥중에 잡혀 온 위공의 자재를 흘린 신세 나쁜 여성으로, 장승상 부부는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른 고귀한 여성으로 숙향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눈앞에 있는 대상이 숙향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연약하고 갈 곳 없는 숙향을 내쳐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숙향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인에게 나이를 묻고 눈물을 흘린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들의 외면으로 숙향을 잃었다는 강한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숙향과의 진정한 재회는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들 모두 멀쩡하게 살아서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숙향과 재회하기 위해 공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장승상 부부와는 재회가 먼저 이루어지므로, 장승상 부부부터 살펴보자. 숙향의 모든 액운은 낙양 옥중에서의 일로 끝이 난다. 이후 친정인연 이선과 결연하는데 성공하고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른다. 마침 흉년으로 형 초 땅이 잘 다스려지지 않자 이선은 천하를 위해 형주자사 직을 자임한다. 부임지에 정렬부인 숙향도 함께 갔는데, 숙향은 가는 길마다 자신이 미천했던 시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오랜 안식처를 제공했던 장승상 부부 역시 빼놓지 않았다. 숙향은 그들에게 의심받고 끝내는 버림받았음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숙향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승상 부인과 재회한다. 어떤 족자를 보이며 승상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장승상 댁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일이 모두 그려져 있다.²⁵ 숙향이 사슴을 타고 처음 장승상 댁 동산으로 왔던 일에서부터 사향에게 구박을 받았던 사건, 혈서

25 “그 족자 그림의 현여시되 숙향을 사슴니 어버다가 장승상댁 동산의 노하니 숙향니 모란 덩굴 밋잇 안조 쪼올거늘 승상니 보시고 부인을 청하야보인 일과 부인니 품사이에 길으던 일과 영춘당에서 잔취하다가 가치로 현야 근심하던 일과 사향이 모함하니 부인 압해서 죽으려 하던 일과□□□□ 울며 글 쓰던 일과 사향니 구박하던 일과 포진물의 와 썩지던 형상을 차려로 그려시니 그씩 일니 어저런 듯 눈의 버릇셔라.”(445쪽)

를 쓰고 끝내는 포진강에 투신한 일까지 모두 말이다. 이는 모두 숙향이 겪은 고난의 기록이다. 그러나 사향에게 구박받았던 일, 이후 혈서를 쓰는 장면과 포진강에 투신한 일은 부인이 당시에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해 들은 일이다.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공감의 깊이에서 차이가 난다. 부인은 족자의 그림을 보며 어렴풋이 의심하거나 외면했던 숙향의 고난을 비로소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숙향을 버린 자가 숙향이 경험한 고난을 추체험하는 일은 김전 부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전은 낙양 옥중에서 숙향을 죽이지 못한 죄로 계양 태수로 좌천된다. 그러다 형주 자사로 새로 부임한 -훗날 사위로 밝혀지는- 이선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계양보다 큰 고을인 양양 태수로 발령이 난다. 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반하물가를 지나다가 김전은 기이한 태도를 보이는 어느 노인과 마주친다. 그 노인은 기마병 삼천을 이끄는 김전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더하여 김전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던지며 과거 숙향의 일을 따져 물었다.

노인에게서 신령함을 느낀 김전은 과거 난리 중에 숙향을 잃었음을 털어놓으며 숙향의 종적을 안다면 부디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걸한다. 그러나 노인은 김전이 만나고 온 형주 자사 이선의 부인이 곧 숙향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김전이 숙향을 반야산 바위틈에 버려둔 이후 겪게 된 숱한 고난의 장소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그곳으로 가 숙향을 찾으라 말한다. 유곡역 마을, 명사계 후토부인의 궁, 남군 땅 장승상 댁, 포진물가, 갈대밭, 마고할미의 집까지.²⁶ 이는 모두 노인의 ‘말’로써

26 “김전니 그져야 범인니 안인 줄를 쾌히 알고 더욱 공경하야 지비 고왈「이저는 숙향을 간 고들 가르쳐 쥬쇼셔,」「숙향니 여러 곳의 갓시니 이르기는 다 일오마는 네가 잘 찾조갈쇼야?」(…) 노인 왈「네 반야산 돌 틈의 두고 가니 도적니 달려가니라,」(…) 노선니 또 같오되「도적니 또 달려다가 유곡역 마을의 두고 가니 봉황금조가 인도하여 명사계에 후토부인 궁중의 갓시니 게가 초자불쇼야?」(…) 노인 왈「후토부인니 힌사슴을 티와 남군 싸 장승상 집 동산의 두엇시니 그 집니 무조식하야 슈양으로 길

제시되지만, 김전은 그와의 문답을 통해 자신 때문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숙향이 다녀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앞서 살핀 장승상 부인처럼 말이다.

〈숙향전〉은 왜 숙향을 외면해 고난에 빠트린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의 서사를 이토록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일까? 숙향을 외면해 버린 자, 나아가 이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 약자를 외면해 버린 경험이 있는 향유층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의 깊은 상실감과 속죄의 서사를 그려낸 것일까?²⁷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와 같이 약자를 외면한 경험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들의 서사는 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숙향전〉의 의도는 좀 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위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장승상 부인과 재회했을 때 숙향이 보인 태도, 김전을 마주했을 때 노인이 보인 태도가 결코 허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상대의 잘못을 질책했다.

앞서 언급했듯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는 숙향에게 조건적 환대를 건넨 인물들이다. 이들의 환대가 숙향의 고난을 끊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숙향전〉은 조건적 환대가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적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라는 진정한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 중 하나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숙향과 같은 타자를 마주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건넬 수 있는 환대이기도 하다.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는 타자에게 무조건적 환대를 건네지 못하는 우리들의 초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숙향전〉이 조명한 이들의 깊은 상실감과 속죄 서사는 의미심장하다. 이들의 서사는 독자로서 하여금 타자

은 다하니 게 가 초자보아라.」(…) 노인 알「그 후의 장승상 집니 샹하니 란 종니 모함흔야 너치니 갈 뒤 업서 포진물의 싸져 옹궁의 삿싸 하니 게 가 초자 모아라.」(…) 노인 알「옥하슈의 처련흔는 아희덜리 연법쥬를 텃 와다가 북노증의 노하니 길흘 그릇 드러 노전의 가서 자다가 화지를 만나 불의 타 죽다하니 게는 육지민 미골탄 지나 잇실 거시니 게 가 초자 보아라.」(…) 노인 알「게서 화지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여씨니 화덕진군니 구 허야 마구홀미 드러갠뻬라하니 인간의셔 부즈런니 초자보면 안니 만나랴?」(449~450쪽)

27 김경미, 앞의 글.

의 고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숙향전〉은 조건적 환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윤리적 반성을 보여주는 서사라고 하겠다.

4. 이선: 낭만적 사랑의 의미와 환대의 가치

〈숙향전〉은 조건적 환대를 넘어서 무조건적 환대의 가능성을 상상한 서사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환대란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낮은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자[일어난 모든 것]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도착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²⁸ 있는 환대를 지칭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모두를 내어주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환대가 곧 무조건적 환대다. 〈숙향전〉은 이 불가능의 환대를 ‘환상’이라는 서사 장치를 활용하여 상상해 낸다. 이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선이다. 이 장에서는 이선이 펼쳐내는 천정인연을 중심으로 한 환상적 서사를 바탕으로 〈숙향전〉이 상상한 환대와 그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선은 전생의 태을선군으로 숙향의 천정인연이다. 소아(素娥)였던 숙향과 함께 죄를 얻어 속계로 추방되었으나, 옥황상제의 총애 덕분에 숙향과 달리 재상가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안온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선은 꿈속에서 부처를 따라 요지(瑤池)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과거 소아, 즉 숙향과의 인연을 알게 된다.²⁹ 이때

28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김은주·김준성 역, 『테러시대의 철학: 허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문학과지성사, 2004, 234쪽.

29 이지하는 〈숙향전〉이 여성주인공인 숙향의 서사는 고난담의 형태로, 남성주인공인 이선의 서사는 모험담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서 차별적 서사 논리를 읽은 바 있다. 고난담 중심의 숙향의 서사는 생존과 혼인에 집중된 서사로 전개되고 모험담 중심의 이선의 서사는 모험을 통한 역량의 확인과 그를 통한 성공이 중심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남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숙향전〉이 구사한 남녀차별적 서사 전략은 소설이 본격적으로 통속화되는 17세기 말에 등장하여 이후 소설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선 후기의 보수적 경향성을 공고히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지하, 「〈숙향전〉의 차별적 서사와 소

부터 이선의 삶은 온통 소아로 점철된다. 부귀공명에 뜻을 잃고 속계로 추방된 소아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속계로 추방된 소아를 찾는 이선의 탐색 서사에서 주목되는 건, 이선이 꿈속 체험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에 이선은 속계에서의 소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미’ 소아를 환대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화정 술 파는 할미와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장사치가 이선의 집을 방문한다. 자수에 걸맞은 제명(題名)을 얻고자 문필로 이름난 이선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수는 이선이 꿈속에서 방문했던 요지연의 풍경과 똑같았다. 도무지 소아를 찾을 방도를 알지 못해 답답했던 이선에게 그 자수는 그녀와의 인연을 가능케 할 한 줄기 빛 같았다. 이에 이선은 장사치에게 자수의 유래를 캐묻는다. 그는 낙양 동촌 이화정의 술 파는 할미에게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이선은 소아와 관련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 곧장 이화정으로 발길을 옮긴다.

과연 이화정은 이선의 상상대로 선계와 같은 곳이었다. 이선은 할미에게 자수에 대해 묻고, 소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할미는 이선과 속향의 현격한 신분 차이를 거론하며 소아와의 만남을 만류한다. 이에 이선은 소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러하냐며 이유를 따져 묻는다. 이에 대해 할미는 속계에서 소아는 상인의 딸이고, 그마저도 잃어 고아가 되었으며, 그렇게 빌어먹고 다니다가 팔 없고 눈 멀고 다리 없고 귀먹은 병인이 되어버렸다고 대답한다.³⁰

이는 다소 과장되었으나, 속향의 처지에 딱 들어맞는다. 속향의 출신은 재상가의 자재인 이선에 비해 한미하

다. 또 속향은 앞서 살폈듯 전란 중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천상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적에게 칼 맞고 강물에 투신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명사계까지 방문한 속향이 멀쩡한 모습이었을 리 없다. 할미의 말은 사실 속향의 ‘벌거벗은’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건 이에 대한 이선의 반응이다.

우선 이선은 전생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묻는다. 그런데 이는 병인의 형세라는 소아를 외면하고자 한 말이 아니다. 안타까움에 그 이유를 찾고자 한 것이 질문의 목적이다. 할미가 소아의 죄가 태을선군 때 문임을 말하자, 이선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인연이 크기에 그 처지를 가릴 수 없다고 답한다. 할미가 이선의 부모를 거론하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며 거듭 만류하지만 그럴수록 이선의 의지는 굳건해진다. 하늘에 대고 맹세까지 하며 병인이 된 소아를 반드시 배필로 삼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재차 할미에게 소아의 행방을 묻는다.

이선의 이러한 태도는 소아에 대한 무한한 책임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³¹ 꿈속 요지에서 만난 본 소아, 옥황상제와 할미의 입으로 전해 들은 소아와의 전생연은 이선에게 병인인 소아를 환대해야 한다는 선험적 명령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선의 굳건한 마음을 확인한 할미는 속향이라는 소아의 현세에서의 이름을 알려주고 드디어 그 행방을 알려 준다. 이에 이선은 실체를 알지도 못하는, 병인이라고도 하는 소아-속향과의 결연을 위해 긴 여정에 나선다.

그 여정은 흥미롭게도 현세에서 소아가 ‘병인이 되어버

31 소아에게 무한의 책임 의식을 느끼는 이선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대속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대속(代贖)이란 타자에 의해 책임적 존재로 지정받은 내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로 세워지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의 요구와 부름에 응답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심지어 타인의 책임을 대신해 고통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선은 병인이 된 소아가 요청하지 않은 책임에 ‘이미’ 응하고 있다. 이후 소아를 탐색하기 위해 그가 떠나는 여정은 곧 소아의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는 길이 된다. 이선은 소아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소아를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이선이 보인 타자 중심의 책임을 레비나스는 ‘무한 책임’이라고 불렀다. 대속과 무한 책임에 대해선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84~193쪽.

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191~222쪽.

30 “『소애 천상의서 득죄하여 인간의 날여야 상인의 자식니 되어씨니 다스 쌀의 부모를 난중의 일코 빌어먹어 정처업시 단니다가 도적의 칼의 마지 혼 팔 업고 포진물의 싸져 죽게 되어실 제 힌이니 구하여 니니 두 눈니 청 밍관니 되었씨니 노전의 가 화지를 만나 불에 더여 한 달리 썩러져 붓터씨니 쏘 기 후의 후토성황을 덧니여 두 귀가 마지 먹어씨니 구터여 그런 병인를 만나 비필을 삼으려 하시니 진실노 헛쏘여 들니너이다.”(410쪽)

리게 된' 여정을 뒤쫓는 일이었다.³² 이선은 할미의 말에 따라 가장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이선은 숙향이 다섯 살 때 난리를 만나 부모를 잃게 된 사연을 알게 된다. 이선의 다음 여정은 남군 땅 장승상 댁이다. 그곳에서 이선은 숙향이 장승상 댁에 의탁하게 된 사연, 사향에게 모함을 당하고 포진물로 나아간 사연을 듣게 된다. 이에 이선의 발걸음은 포진물로 향한다. 포진물의 신령이 숙향이 투신한 사연을 들려주고, 그녀를 찾고 싶다면 아득한 들판으로 나아가라 안내한다. 지시에 따라 도착한 곳은 숙향이 큰 화재를 만난 갈대밭이었다. 그곳에서 이선은 갈대밭의 화재를 만나 잿더미가 될 뻔한 사연까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선은 숙향을 만나기도 전에 숙향이 겪은 네 번의 죽을 액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지난했던 여정을 직접 밟로 밟으며, 온몸으로 그 고난을 체험한 채로 말이다. 숙향의 고난을 직접 체험한 이선은 숙향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화덕진군의 친절함 안내에 따라 다시 도착한 이화정에서 이선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할미를 만난다. 그리고 숙향을 찾지 못하면 자신을 죽을 것이라며 숙향의 행방을 가르쳐 달라 매달린다. 할미가 상서 댁의 귀공자가 아름다운 배필을 구해 한가롭게 지낼 것이지, 왜 하필 병든 숙향을 찾느냐며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시험한다. 이에 대한 이선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너 부귀를 낫바호오며 비필을 못어더 호미 안니오라. 전싱 일를 모를 제는 무심호더니 아온 후는 숙향을 위호야 침식니 불안호고, 또 날노호여곰 인간의 날려와 병이니 되

32 김지혜, 앞의 글, 53~54쪽. 김지혜 역시 이선의 서사가 숙향의 고난을 추체험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변 인물이 숙향의 고난을 추체험하는 과정은 숙향의 고난이 개인적 기억에서 공유된 기억으로 재편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공유된 기억은 숙향이 과거의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나 김지혜의 논의는 주로 숙향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 글은 숙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변 인물과 서사의 전체 구조로 확장해 숙향의 고난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글은 숙향의 고난 극복 서사에서 숙향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가 가는 의미를 강조한다.

어 고흥를 지닌다 호오니, 너 간장니 비록 철석인들 엇지 잔잉치 안니호리요? 숙향을 못만나면 결단코 인간의셔 잔명을 부치지 못호리로쇼이다.”(417쪽)

위 인용문에서 숙향에 대한 이선의 책임 의식이 구체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이선은 숙향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모두 뒤쫓은 후다. 그런 그에게 숙향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본인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강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선의 삶의 목표는 하루빨리 숙향을 만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숙향을 향한 이선의 마음은 꿈속에서 만난 묘령의 여인을 잊지 못해 안달이 난 혈기 왕성한 청년의 마음이 아니다. 숙향을 향한 이선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단 책임감에 가깝다. 이선은 아리따울지도 모르는 숙향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루빨리 그녀를 만나 지난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여 숙향을 애타게 찾고 있다.

때문에 이선과 숙향의 낭만적 사랑은 곧 신분을 초월한 반사회적 사랑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무조건적 환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³³ 둘의 결연에서 신분의 차이는 주요한 요소가 아니다. 신분은 숙향의 타자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 부모 잃은 고아라는 것, 팔 없고 눈 멀고 다리 없고 귀먹은 병인이라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선은 재상가의 자재라는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어줄 결심을 한 뒤에야 비로소 숙향과 만난다. 이선이 겪은 결연의 과정과 지연은 무조건적 환대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33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에 주목한 이상구는 <숙향전>의 주요 갈등을 숙향의 다섯 번째 액운, 즉 혼사장애에서 찾은 바 있다. 논자에 따르면 숙향과 이선의 신분을 초월한 낭만적 사랑은 조선 후기 화폐 경제 발달에 따른 봉건적 신분제도의 동요를 반영한다(이상구, 앞의 글, 1991, 84~98쪽). 숙향과 이선의 사랑은 현격한 신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낭만적 사랑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신분제 사회를 비판하는 반사회적 성격보다는 타자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환대-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야 가능한,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중요한 건 이선이 숙향에게 보인 무조건적 환대가 가져온 변화다. 이는 이선과 숙향의 결연 이후의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확인했듯이 숙향에게는 아직 한 차례의 액운이 남아 있다. 바로 낙양 옥중에서 맞아 죽을 액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혼사장애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위공이 자신의 아들이 격에 맞지 않는 처녀와 남몰래 혼인을 올리자 둘의 사이를 떼어 놓자는 심산으로 계획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천상의 도움으로 잘 극복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숙향의 행복은 곧바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선 부모의 반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건 숙향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이다. 이 전까지 숙향은 김전 부부와 장승상 부부 등 계속되는 사람들의 외면에 큰 상처를 품고 살아왔다. 이는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난다는 네 번째 액운을 겪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숙향이 모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할미에게 건넨 “날을 바리지 안니 호오면 좃츠 가오련니와”(399쪽)라는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버려짐’의 기억은 숙향에게 실로 큰 상처로 남았던 것이다.

버려지고 또 버려졌던 과거의 숙향에게선 삶에 대한 의지나 위기를 타개할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숙향이 본래부터 무능력한 존재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어린 시절 김전은 숙향의 뛰어난데 단명할 것을 걱정했었고, 장승상 댁에서는 가사를 도맡을 정도로 총명함을 보였다. 이화정 할미 댁에서도 수 놓는 실력을 발휘해 큰 재산을 일궈낸 바 있다. 안정된 삶만 보장된다면, 숙향은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해 보일 수 있는 뛰어난 잠재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숙향의 잠재력은 타인의 보호 아래 안정된 상태에서만 발현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버려지고 버려지며 고난으로 내몰렸던 삶 속에서 숙향은 삶의 주도권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 하지만 지금의 숙향은 다르다. 이제 숙향은 이선의 무조건적 환대를 경험했다.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의 경험은 숙향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숙향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혼인을 반대하는 이 상서³⁴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다. 바로 바느질 솜씨와 수 놓기 실력으로 말이다.

이선은 고모의 힘을 빌려 숙향과 몰래 혼인한 후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한다. 낙양에 홀로 남겨진 숙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한 의지처였던 할미마저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홀로 남겨진다. 할미가 남겨둔 청삼사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선의 집으로 가 몸을 의탁하게 된다. 이때 이선과의 전생 인연이 밝히면서 상서 부부는 그간 숙향에게 가졌던 적대적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그리고 할미마저 잃어 갈 곳 없는 숙향을 집안으로 들인다.

그러나 이선의 식구들이 숙향에게 온전히 마음을 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상서 부부는 숙향의 그간의 행적과 출신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후 이선의 모친 왕씨 부인은 사방으로 떠돌아 배운 바가 없을 것이라 짐작하며 숙향의 실력을 시험했다. 그 시험은 상서의 공복을 짓는 일이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숙향에게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부인의 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숙향은 자신에게 드리워졌던 의심의 시선을 거두는 데 성공한다.

주목되는 건 그다음의 일이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부름에 상서는 상경길을 서두르게 된다. 문제는 흥배가 너무 낡아 숙향이 새로 지은 공복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갈 길이 급하기에 부인은 시비들에게 아무 곳에서나 마땅한 흥배를 사올 것을 명한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숙향은 자신이 새로운 흥배를 수 놓아 보겠다고 청한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매우 빼어난 흥배를 만들어 낸다. 훌륭한 솜씨에 상서 부부는 감탄한다.

숙향의 뛰어난 솜씨로 멋지게 차려입은 상서는 드디어 황제를 접견한다. 황제는 상서의 관대와 흥배를 보고는 누

34 이 상서는 곧 이선의 아버지다. 본래 위공(魏公)이었으나, 이선을 낳고 황제가 가자(加資)를 올려준 후 상서직을 더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선의 부모를 상서 부부로 칭하기에, 이 글에서도 이를 따른다.

구의 숨씨인지를 묻는다. 상서이 며느리의 숨씨라고 답하자, 황제는 아들이 살아있는지를 묻는다. 살아있다고 답하자 황제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그 내용은 아들이 살아 있는데 대체 왜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는 학의 형상을 수 놓았냐는 것이었다. 황제의 말에 상서는 대경실색하여 아들의 혼사와 관련된 그간의 사건들을 빠짐없이 고하고, 이를 들은 황제는 숙향을 치하하며 여러 보배를 하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서는 숙향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한다. 상서의 인정은 순전히 숙향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다. 특히 흥배에 짝 잃은 학을 수 놓아 자신의 처지를 황제에게 은근히 알린 것은 대단한 기지라고 하겠다. 숙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주동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무조건적 환대의 경험이 가져다 준 변화라고 하겠다.

숙향의 변화는 이선이 과거에 급제하고 정렬부인이 된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잠시 서술했듯 과거에 급제한 이선은 형초 땅에 오랜 흉년이 들어 도적이 들끓자 형주 자사로 부임할 것을 자청한다. 이선의 새로운 부임지에 숙향 역시 동행하는데, 숙향은 이선의 뒤를 곧바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형주로 가는 길목 길목에서 과거의 행적을 되짚는다. 그 곳에서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모 든 것들에게 보은한다. 반야산에서 버려져 추위와 배고픔에 지쳤을 때 품어주고 길을 안내했던 새들에게 보은하고, 포진물에 몸을 던져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자 했을 때 살려 준 포진물 신녀에게도 보은하고, 갈대밭에서 등을 내어준 화덕진군에게도 보은한다.

숙향은 자신을 외면한, 그래서 술한 고난으로 자신을 내몬 장승상 부부와 부모-김전 부부-에게도 보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숙향은 그들의 외면을 이해하고 용서한 것이다. 자신을 버린 자, 자신에게 상처 준 자를 품은 숙향의 행위는 환대라고 볼 수 있다. 데리다는 나를 위협하는 '적'조차도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숙향이

보인 보은의 여정은 나를 버린 자, 나에게 위협을 가한 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한 환대이다. 적을 환대하는 숙향. 숙향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타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제 숙향은 내가 아닌 타자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적 주체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숙향의 변화를 이끈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선의 무조건적 환대였다는 사실이다. 숙향은 이선의 무조건적 환대를 경험하면서 고통받고 도움을 기다리는 타자에서, 타자의 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개인을 넘어 주변에 대한 환대로 확장되었다. 숙향이 보여준 보은의 여정이 바로 그 증거다. 한 사람이 실천한 무조건적 환대의 가치는 이토록 깊고 무한한 파급력을 지닌 것이다. 비록 환상이라는 서사 장치를 빌리고 있으나, <숙향전>이 펼쳐 보인 무조건적 환대에 대한 상상은 무조건적 환대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숙향전>을 타자에 대한 환대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서사로 읽어보았다. <숙향전>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환대와 윤리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윤리적 텍스트로 재해석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수많은 타자를 만들어 낸 충격적 사건을 겪고 숙향과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타자의 여러 얼굴들을 마주했을 것이다. <숙향전>이 그려낸 환대의 서사는 타자의 부름에 윤리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고민의 궤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숙향전>이 누린 대중적 인기의 요인은 바로 이러한 타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환대가 만들어 낸 놀라운 기적이 선사하는 감동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적대와 혐오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숙향전>이 전하는 타자와의 공존과 환대의 가치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진영 · 차충환 편저, 『숙향전 전집』 1, 박이정, 1999.

2. 단행본 및 논문

- 강영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김경미, 「〈숙향전〉: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 김지혜, 「기억의 서사로 읽은 〈숙향전〉의 의미: 반복 서술되는 고난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3,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6.
- 김태영, 「〈숙향전〉에 나타난 마고할미의 역할과 그 의미: 〈이대봉전〉의 마고할미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23,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 박경,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の 정착」, 이화여대박사논문, 2007.
- 서보영, 「고전소설 〈숙향전〉의 보조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겨레어문학』 64, 겨레어문학회, 2020.
- 송해란, 「〈숙향전〉에 나타난 숙향의 二重的 正體性과 그 의미」,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징」, 『이수봉박사 정년기념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38, 한국언어학회, 1997.
- 에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그린비, 2018.
- 윤경희, 「이대봉 〈숙향전〉에 나타난 進明論적 세계관」, 『한국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학회, 1995.
-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 이상구, 「〈숙향전〉의 문학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박사논문, 1994.
- _____, 「〈淑香傳〉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 이승은, 「〈숙향전〉: 경계 허물기와 동일시의 서사」,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 이유경,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 _____,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 이지하, 「〈숙향전〉의 차별적 서사와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현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 조혜란, 「〈숙향전〉의 숙향: 청순가련형 여성주인공의 등장」,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 김은주 · 김준성 역,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문학과지성사, 2004.
-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 한의순, 「위계적 남성과 박탈된 여성, 그리고 약자의 연대와 위로: 〈숙향전〉 독해와 교육의 시각」, 『한국문화논총』 88, 2021.

Abstract

The Narrative of Others and Hospitality

An Ethical Reading of the 〈Sookhyangjeon〉

Yoo, Hae-In |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interprets 〈Sookhyangjeon〉 as a narrative that emphasizes hospitality and ethical responsibility towards others. Sookhyang is not a protagonist who overcomes adversity independently. Instead, she embodies the suffering face of the Other, compelling those around her to respond ethically. Consequently, the core events of 〈Sookhyangjeon〉 unfold based on the ethical responses of the surrounding characters, categorized as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hospitality. Kim Jeon, Jang Seung-sang, and their wives exhibit conditional hospitality. Their conditional hospitality fails to prevent Sookhyang's fated hardships. Following her suffering, their narratives of atonement overlap with Sookhyang's trials, reflecting the limitations of conditional hospitality and prompting ethical reflection. In contrast, Lee Sun represents unconditional hospitality. Recognizing Sookhyang as his fated heavenly partner, he perceives his duty to care for her as an a priori command and embarks on a journey to trace her hardships. Through this journey, Lee Sun comes to deeply understand Sookhyang's suffering and fulfills his unconditional hospitality through a love that transcends social status and circumstance. As a result, Sookhyang reclaims agency in her life and transforms into an ethical subject, capable of confronting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both her own suffering and that of others.

Keywords Sookhyangjeon, Other, the Face of the Other, Responsibility, Hospitality, Ethical Narrative, Romantic Love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